



CoC 현대 일본 시나리오 <결납>

- ❖ 제목을 예물, 폐백 등 뭐라고 번역할지 고민했으나 검색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그대로 결납으로 표기했습니다.
- ❖ 원본 시나리오는 6판 기준으로 쓰여있으므로, 7판에 맞춰 적당히 판정을 수정한 곳이 있습니다.
- ❖ (*)는 역주입니다. 오타자나 오역을 발견하면... 눈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시나리오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문의는 시나리오 라이터 鷄님께 문의해주세요. 후기나 감상 역시 가능하다면 라이터님께 직접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원본 주소 → <https://www.pixiv.net/novel/show.php?id=9739918>

< 원본 캡션 >

결납(結納;ゆいのう)이란, 장래의 결혼 즉 약혼의 성립을 확인하는 의미로 물건 따위를 교환하는 일본의 풍습. 또는, 그러한 의무 및 그 물건. (*예물)
 준추천으로 "활"이 들어가있는 보기 드문 시나리오입니다.

추천기능: 자료조사/일본어

준추천기능: 사격(활)

로스트확률: 낮음

플레이시간: 2시간 정도 (보이스 세션)

비고: 루트에 따라서는 후유증의 가능성 있음

▼다음 페이지부터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정보가 나오므로, PL 예정인 분은 읽지 마십시오.▼

【시나리오에 대해】

KPC에게 한눈에 반한 여우가 억지로 KPC를 신부로 맞으려고 하는 것을, PC가 어떻게든 한다.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등장 신격】

흰 꼬리의 여우 (오리지널 신격)

【등장신화생물】

요호妖狐 (오리지널 신화생물)

【시나리오상의 주의/KPC의 특수기믹】

전제로 【도입】 개시 일주일 전부터 KPC는 여우에게 홀려있습니다. 그러므로 KP는 특수기믹으로 "KPC의 여우홀림 진행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PC가 진상에 가까워질 때마다 수치가 높아집니다.

▼KPC의 여우홀림 진행도

1~2..... 이상한 꿈을 꾼다. 자신이 시로무쿠를 입고 결혼하는 꿈.

3~5..... 몸이 나른해진다. 수상하게 주위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6~7..... 집에만 틀어박히려고 한다. PC와도 만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클라이맥스 때 이외에는 KPC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만나는 것도 거부당한다.)

8~10..... 완전히 여우에게 홀린다. 누구와도 만나려 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부터 시나리오 본문입니다.

【도입】

PC는 꿈을 꾸다. 그것은 KPC가 시로무쿠를 입고 전통식 혼례를 올리는 꿈이다. 그러나, 자신은 곁에 없다. 그의 옆자리에 있는 것은..... 무심코 숨을 삼킬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새신랑이었다.

<뉴스>

여우비가 내릴 거라는 뉴스=여우가 시집가는 날인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흘린다.
게다가 PC가 살고있는 동네에서는 최근 행방불명자가 유난히 많다고 한다.

<KPC와 만나다> ▼진행도+1

KPC에게서 PC에게 연락이 온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KPC는 이하의 내용을 PC에게 상담한다.

*1주일쯤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는 것

*말하기 어렵지만, 본 적 없는 절세미남과 결혼하는 꿈

*그렇지만 주변을 보면 모두 여우 가면을 얼굴에 쓰고 있어, 그것이 무섭게 느껴진다.

이야기가 끝나면, KPC가 오늘은 PC의 집에서 묵어도 되겠냐고 묻는다.

<숙박 이벤트>

새벽 2시, PC는 무슨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뜬다. 소리의 발생지는 KPC였다.

그러나 그 눈은 멍하고, 그 다리는 현관으로 향하고 있다.

맨발인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KPC를 잡아세우자, 팔을 뿌리치고 노려본다.

그 눈동자의 색은 일순, 밤의 어둠 속에서도 알 정도로 번쩍—황금색으로 보였다—였으나, 그것도 한 순간이고, 휘청 하며 KPC가 쓰러진다.

지탱해주면, "어라?" 하고 KPC는 PC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다.

몽유병을 앓은 적은 없다고 말하고서, KPC는 다시 한번 누워 잠의 세계로 빠져든다.

다음날 아침, KPC는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게 된다.

맑은 하늘이었을 텐데—그러나, KPC는 "아, 여우비다." 하고 자신의 뺨을 적신 빗방울을 보며 말한다.

"요즘 이상한 날씨가 자주 있지. 한 일주일쯤 전부터인가." 하며 KPC는 PC에게 말하고는, 접이식 우산을 펼치고 돌아간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진다.

【메인】

▼숙박 이벤트가 끝나고부터 본격적인 탐사 시작

<행방불명자에 관하여> ▼진행도 +1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 행방불명자에 관한 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정보가 나온다.

*행방불명자는 성별 구분이 없다.

*행방불명자의 특징으로는 뭔가 이상한 꿈을 꾸다고 하는 것

→ 꿈의 내용을 알고싶은 경우에는 경찰 자료나 직접 관계자를 만나기, 가심 잡지를 입수하기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에서 더 조사하려고 한다면 극단적인 판정이나 크리티컬로 이하의 정보를 내줄 수 있다.

<행방불명자에 관하여2> ▼진행도 +1

*꿈의 내용이란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실종자는 모두 어딘가 울적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실종되기 전날, 여우비가 내렸던 적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우의 혼례에 관하여> ▼진행도 +1

도서관에서 조사하면 어떤 문헌에 적혀있다.

「『여우의 혼례(*狐の嫁入り; 여우비 또는 도깨비불의 행렬)』는, 그 자체가 어떤 일을 가리켜 이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본의 민담이나 전설을 여럿 읽어보면, 이른바 도깨비불이나 여우불 계통의 『여우의 혼례』도 포함하여, 여우가 인간을 홀리는 재주 중 한 가지로 신부 행렬의 환각을 표현하는 재주가 있다는 듯하다. 이 관념은 제법 보편적이며, 어느 지역에서는 영혼의 행렬을 그것으로 정의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여우비가 내리는 날 여우의 요력이 늘어나 이 주술을 부린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탐사자가 살고있는 지역에서의 여우의 혼례에 관하여> ▼진행도 +1

도서관이나 인터넷이나 이른바 동네의 고령자에게 물어보면 이하의 정보가 나온다.

「이 지역에서는 행방불명자가 나오는 때에 여우비가 내리는 때 "여우가 채어갔다", "여우님에게 장가들었다(시집갔다)" 같은 식으로 돌려말한다는 듯하다.」

「여우가 채어갔다고 하는 행방불명자는, 모두 【미야모치宮持 신사】에서 제사지내고 있다.」

<미야모치 신사> ▼진행도 +2

신관인 미야모치 하루코가 여우의 혼례나 여우홀림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여우홀림에 관하여」

예로부터 여우홀림이라는 현상은 동물령인 여우가 인간에게 붙어서 신탁을 건네는 일을 유래로 하고 있다.

옛날에 사람들은 여우홀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그 신탁에 의해 그 해의 풍작의 예고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근세에 접어들어 이나리(*곡식의 신;여우) 신앙이 희미해지면서 사당이나 신사가 노후화되어 가고, 그에 불만을 표하듯이 여우가 씹이기 시작했다.

그 홀리는 방법은 옛날의 방식과는 다르게 심한 폭력성이나 정신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이나리 신사의 건립'이나 '노후한 사당의 수복' 따위를 요구하기도 하게 되었다.

이는 이나리 신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걱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겨났다고 보인다.

「이 지역의 "여우의 혼례"와 "여우홀림"에 관하여」

이 지역은 조금 드물게, 여우의 혼례와 여우홀림의 전승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먼저 신부 또는 신랑으로 삼을 이에게 여우가 씹이고, 인간일 적의 사상이나 사고, 정신을 소모시킨다.

인간에서 여우의 권속으로 그 몸을 바꾸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의 혼을 요괴의 혼으로 타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 혼을 깎아낸 후에, 새로이 그 인간을 권속으로서 맞아들인다는 것이 이 지역에 전해지는 여우의 혼례이다.

<서적> 진행도 ▼+1

읽는 데에 일본어 롤이 필요 (2회 이상 다시 굴리는 경우 진행도가 +1된다)

「여우의 혼례」

「옛날 옛적, 이 땅에 미야모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 그 처녀는 어찌나 상냥한 성품인지. 어느 날은 상처입은 여우를 간병하여, 산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여우는 크게 감동하였으니, 흰 꼬리의 여우에게 간청하기를 “그 처녀,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하여.」

「백미호가 크게 놀라시니, 여우는 각별히 간원하였더라. “부디, 부디, 그 처녀를, 저의 아내로.” 백미호, 여우의 말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더라.」

「여우는 이윽고 처녀를 홀리더니, 처녀의 혼을 삼키려 탐내었다.」

「수일 후, 시집가는 처녀가 시로무쿠를 차려입으니 몹시도 어여뻐다. 그러나 안색이 어둡더라. 여우가 처녀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슬퍼하고 있느냐.”」

「처녀가 울며 답하기를, “사랑하는 이가 있사오니, 기뻐하기 곤란하외다.”」

「여우가 심히 몸을 떨며 망설일 제, 그늘에서 '이얍!' 하고 웅맹한 음성이 났다. 돌아보니 젊은 사내가 활을 들어 여우에게 마구 쏘아대었다.」

「여우는 숨을 거두었다. 사내는 처녀의 손을 잡고 마을로 돌아갔다.」

또한, 서적을 다 읽고나면 그 책의 마지막에 메모용지가 한 장 끼워져있는 것을 깨닫는다.

<메모용지의 내용>

*이 책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남자의 후손으로 생각되는 집안의 주소 <XXX-XX-XXX>

<후손의 집> ▼진행도+2

후손의 집으로 향하면 '하라요시原吉'라고 적힌 목조 단층집이 있으며, 안에서 여성이 나온다.

여성은 '하라요시 키리코'라고 소개하며, 여우홀림에 관해 물으면 시원하게 KPC를 맞이해줄 것이다. (그녀는 여우홀림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관찰(하지 않아도 괜찮음)

집에 들어온 후에, 객실로 안내하는 사이 관찰을 굴리면 지나가는 방 중 하나에 영정이 늘어서 있는 방이 있고, 그 영정이 유난히 남성이 많은 듯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라요시 키리코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 집에는 대대로 전해지는 화살이 있다(아티팩트: 파마의 화살). 그런데 이 화살은 신비하게도 인간을 다치게 하지는 않고, 여우와 관련된 괴물에게만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화살도 보여준다. 여기서 PC가 화살을 빌리고 싶다고 말하면 빌려준다. 빌리고 싶다는 제안이 없으면 '자료로 당분간 빌려드릴까요?' 하고 화살을 떠맡긴다.

▼아티팩트: 파마破魔의 화살

∴ 이 화살은 여우류 이외의 요괴나 신화생물, 신격, 인간 등에는 대미지를 줄 수 없다.

또 사용자는 강제적으로 전투기능인 사격(활)에 +50의 보정이 들어간다. 【활의 초기치는 15%】

(그러나 원래 기능을 초기치 이상 가지고있는 탐사자에게는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여우에 관련된 요괴에는 반드시 명중한다. 화살의 개수는 10개쯤 남아있다.

대미지(여우에 관련된 요괴 한정 적용): 1d10+1d8

*고지도(산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여우를 사살한 이 집안에서는 남성은 요절해버린다.

*여우의 저주가 남아버렸다는 것을 전해준다.

*여우로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로 맞으려고 한 것이다, 동물이라고 선조가 사살해버리게 그만 후대에까지 이어져버렸다 운운 따위의 푸념 같은 것도 이야기한다

*또 책의 뒷이야기를 물으면, 원본은 소실되었지만 필사라면 있다며 뒷부분을 보여준다.

<책의 뒷부분>

「마을로 돌아온 뒤 사내는 처녀와 가약을 맺었다. 그러나 여우의 저주인지, 혹은 시기의 문제인지. 열병에 걸려, 순식간에 죽고 말았다.」

「그 때부터 사내의 집안에서는 남자는 단명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여우의 저주라고 불렀으나. 그것 참.」

「여우는 처녀를 홀려, 억지로라도 아내로 맞으려 했다. 사내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여우를 쏘아 죽였다. 언뜻 보면 괴물에게서 처녀를 구해낸 이야기처럼도 보이지만.」

「과연, 그게 좋은 결말이었을까.」

「여우로서도, 무언가 할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산> (클라이막스 때 이외에 가면 진행도+1)

*클라이막스 때 이외

울창한 나무들이 공기를 무겁게 하고 있다. 나아가도 나아가도 녹색은 깊어질 뿐이지만, 문득 보면 다 쓰러져가는 신사를 발견한다.

•여우의 신사 (평범한 겉모습(*주문; 平凡な見せかけ)을 사용하고 있다)

→ 이 시점에서는 그저 썩어가는 신사라는 것밖에 알 수 없다.

【클라이막스】

후손의 집에서 정보 수집을 끝내면, 클라이막스로 돌입한다.

빌려온 화살을 들고, 이제 어떡할지 숨을 돌리고 있으면 뺨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오늘은 맑음 예보였을 텐데, 하고 젖은 곳을 닦는다.

문득,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울린다.

확인하면 그것은 **KPC**로부터.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보면, 흐트러진 호흡에 괴로운 음성으로, **KPC**의 말이 **PC**의 고막을 흔든다.

"살려 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긴다.

PC는 화살을 짊어지고 산으로 향한다.

산을 올라가면 점점 주위가 어두워진다. 몸을 적시는 빗방울의 기세는 갈수록 강해진다.

문득 등불의 불빛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하나, 둘, 셋. 그 불빛은 늘어난다..... 나타난 등불의 행렬의 중심에는, 자신이 잘 아는 인물이 시로무쿠를 입고 걷고 있다. 주변에는 여우가 십수 마리가, 입에 등불을 물고 새신부 곁에 바짝 따라붙어서 행렬을 이루고 있다.

말을 걸 틈도 없이, 행렬은 스르르 나아간다. 어떻게 된 괴이쩍은 주술을 부리고 있는지, 아무리 **PC**가 가까이 가려고 해도 행렬에는 일정 거리 이상 다가갈 수 없다.

어느정도 지나면 여우의 혼례 행렬은 한 화려한 신사의 안으로 들어간다.

뒤를 따라가면, 그곳에 있는 것은 여우가 아니라 화려한 의상을 몸에 휘감은 인간들이었다.

그러나 전원이 여우의 가면을 얼굴에 덮어쓰고 있어서, 손에 들고있는 등불의 불빛이 섬뜩함과 화려함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야, 경사스런 일이로고!"

"참으로, 참으로!"

축하의 말이 여기저기에서 떠도는 중, 신사의 경내 앞에서 마주서는 **KPC**와 절세의 미장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잠시 후—축하인사가 똑, 맞는다.

전원의 시선이 신부와 신랑에게로.

그 신부와 신랑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선을 든다.

따라서 PC도 시선을 올리면 거기에는, 흰 꼬리를 가진 거대한 여우가, 있었다.
허공을 날듯이 나타난 흰 꼬리의 여우가 사뿐히 신랑 신부의 앞에 내려선다.

“이 인간으로 졸느냐.”

묵직한 목소리는 흰 꼬리의 여우에게서 나온 것일 터.

한 쪽이 그 말에 꼬덕이면 흰 꼬리의 여우는 “그럼, 잔을.”이라고 짧게 명령한다. (흰 꼬리의 여우를 본 것으로 SAN체크 1/1d4)

▼분기

*부부의 잔을 주고받는 것을 지켜본다. → **END: A**

*파마의 화살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부부의 맹세를 나누기 전에, 비명소리가 울린다. 파마의 화살은 똑바로 여우의 목을 꿰뚫었다.

그러자,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이 2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로 변한다.

PC의 손은 그만두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다.

몇번이고 몇번이고 활을 당겨, 여우를 노려 화살을 쏜다.

끔찍한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서야, 겨우 PC의 손이 멈춘다.

망연한 백미호와 주변의 여우들을 보고, "이거 찬스!"하고 소중한 사람을 구하러 뛰어든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이 KPC는 PC를 보았다.

"(PC의 이름)....?"

여우의 무참한 시체를 보고, KPC는 파랗게 질린다. 그러나 PC에게는 알 바가 아니다.
달리고, 달린다.

∴ 흰 꼬리의 여우나 요호로부터 도주 이벤트

민첩 판정을 4회 성공할 필요가 있다.

1회 실패→ 어떻게든 여우에게 잡히지 않았다

2회 실패→ 1d3마리의 요호에게 붙잡힌다.

▼요호의 데이터 (말레몬(*말레우스 몬스트로룸): 늑대 才才力의 스테이터스를 개변)

STR: 65	DEX: 65	POW: 50
CON: 50		EDU: 75
SIZ: 40	INT: 60	
DB: 없음	HP:10	MP:10

【기능】

물어뜯기: 30%, 대미지 1d8

관찰: 60%

도주: 80%

【주문】평범한 걸모습

(3라운드 경과하면 추가로 1d3마리)

▼전투 전의 처리로, 화살은 1d6+2개 줄어 있다. (여우를 쏘았기 때문)

(전투종료후) 민첩 3회째 실패→ 다시 전투

전부 실패(or 전투로 8라운드 경과)→ 흰 꼬리의 여우에게 붙잡힌다→ **END: B**

따돌린다→ **END: C**

*그 밖의 방법으로 잔이 교환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잔을 교환하기 전에 막으려 끼어들면 여우가면들이 일시에 살기를 뿜는다. 그 가면의 안으로 보이는 눈동자가 형형하게 불타고 있다. (SAN체크 0/1)

KPC는 PC를 보고, 번득 이성이 되돌아온 듯이 이름을 외친다.

"인간이여, 무슨 일이냐."

여우가면들의 살기를 타이르듯이 흰 꼬리의 여우가 PC에게 묻는다.

PC의 말을 다 듣고 나면 흰 꼬리의 여우는 유유히 눈꺼풀을 감는다. 그리고, 후우, 하고 숨을 뱉는다.

"그렇게까지 이 자를 돌려받고 싶은 게냐? 알겠다. 그렇다면 거기의 여우와 승부를 해라. 이기면 그대에게 돌려주마."

백미호가 그렇게 말하자, 잔을 들고있던 여우가 놀란 듯이 백미호를 본다. 그러나 이 여우들의 장로일 백미호의 의사는 절대적인지, 그 입에서 반대의 말은 나오지 않는다.

여우는 밍살스럽다는 듯이 PC를 향해 돌아서고, 빙글 몸을 회전시켜 두 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로 모습을 바꾼다.

"안심하거라. 정정당한 승부다. 저주 따위는 걸지 않느니."

"그 비겁한 사내처럼 불시에 습격하지 않은 것만은, 칭찬해주마."

커다란 꼬리를 허공에 노니며, 백미호는 붉은 눈동자를 PC에게 향한다.

"화살을 들어라. 인간이여."

불가사의하고 어슴푸레한 빛의 불꽃이 주변에 타오른다. 여우가면들이 "신부 쟁탈전으로구나!"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하며 이전까지의 살기를 지우고 소란을 피운다.

"이 백미호가 지켜보겠노라."

그리고, 꼬리 둘 달린 여우가 한 번 울었다.

▼꼬리 돌을 가진 요호의 데이터

STR: 95	DEX: 75	POW: 55
CON: 50		EDU: 75
SIZ: 50	INT: 60	
DB: 1d4	HP:10 (+마술에 의한 특수장갑 +9의 합계19)	MP:10

【기능】

물어뜯기: 30%, 1d8+db

미행: 75%

추적: 80%

할퀴기: 30%, 1d6+db

회피 50%

【주문】평범한 걸모습

전투에 졌을 경우→ **END: D**

전투에 이겼을 경우→ **END: E**

【엔딩】

▼END: A 여우의 혼례

PC는 숨을 삼키고, 그 잔이 오고가는 것을 지켜본다.

"경사로다! 경사로고!"

요란을 떠는 여우가면들은 꺾꺾 깔깔, 미친 듯한 연회에 취해 있다.

KPC의 눈동자에는, 이미 인간의 영혼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지, 마치 인형처럼 빛 없는 눈동자는 유리구슬 같이—아름답게도 보였다.

시로무쿠 차림이, 그 감정이 결핍된, 혼이 축생까지 떨어진 고기 그릇에 잘 어울린다.

알곶은(*皮肉; 직역하면 가죽과 살), 끝이었다.

흰 꼬리의 여우가 후우, 하고 날숨을 불자 비가 멎는다.

맑게 갠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문득 KPC와 눈이 마주친 느낌이 들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눈에, 보름달의 빛이 내리쬰어 인형 같은 무기질함이 한층 눈에 띈다.

"안녕."

단 한마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을 소리 없는 말이, PC의 귀에 들어오고..... 다음 순간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정신을 차리면 그곳에는 남아빠진 신사와, 짐승도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 고요한 밤을 휘감은 숲속.
과연, 소중한 그 사람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제는 더이상 알 길이 없다.

KPC 로스트, PC 생환

*생환 보상
『SAN회복』
생환: 1d10

▼END: B 짐승의 먹이

흰 꼬리의 여우가 눈 앞에 강림한다. 그 모습은 엄숙하면서도, 꺼림칙하다.
거친 숨을 뿜는 여우들은, 모두 PC를 죽이려하며 살기를 세우고 있다.

"잘도 잘도 잘도 나의 동포를 죽였겠다 인간이여!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붉은 눈동자가 훑 가늘어지더니, PC의 사지가 단단히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된다.
KPC의 비명이 울리고, 그것을 인식하기 전에—자신의, 내장이, 물어뜯기, 며.

"우리가 먹을 것까지도 없다. 산짐승들에게 뜯어먹혀 죽어라."

벌레가, 새가, 이 산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PC의 적이 되고, 포식자가 되었다.
KPC는 아름다운 신부의상을 걸친 채, 여우들에게 끌려간다. 아아.
아아, 하고 손을 뻗으려 해도, 그 손이 이미 없으니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덱석, 새에게 눈알을 쏘여, 시야가 암전한다.

의식이 끊어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KPC, PC 둘 다 로스트

▼END: C 여우의 저주

여우들의 추적에서 목숨만 겨우 붙은 채로 도망치면, 손을 잡은 끝에는 신부 의상을 입은 KPC가 있다.

그러나 나뭇가지며 잎이 붙어있어 그 모습은 다소 초라하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말을 걸며, 두 사람은 산에서 마을로 돌아온다.

—그 둘의 모습을 노려보는 그림자 따위는, 꿈에도 모르고.

얼마간 지나서, PC는 어떤 꿈을 꾸게 된다.
꼬리가 2개 달린 여우가 밤이면 밤마다 나타나 저주를 토하는 것이다.
그 두려운 말에, 매일밤, 매일밤 가위에 눌린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가서, 안심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

어느 날의 밤, 그 꿈은, **PC**의 목에서 희미한 숨마저 앓아간다.

"땀살스러운 인간이여. 그러나 나의 저주는 곧 이루어진다."

짧은 그 말과 함께, 눈을 뜬다. 흠뻑 젖은 셔츠가 불쾌하다.

.....깜짝 놀라, 자신의 팔을 본다.

마치 녹슨 것 같이, 시커먼 멍이 생겨 있다.

이건, 뭐지.

아프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남자는 요절’

‘여우의 저주’

‘나의 저주는 곧 이루어진다’

두근, 두근, 하고 심장이 시끄럽다. 아아, 이것은—이것이야말로, 저주인가.

이해하면 금방이었다.

녹슨 듯한, 거무스름한 반점과, 자신의 운명.

"짧은 명을, 마음껏 즐기도록 해라.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어디서 누군가가,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KPC, PC 둘다 생환

*생환 보상

『SAN회복』

생환: 1d10

『**PC**후유증/여우의 저주』

PC는 1d3+1세션 후에 사망(로스트)하게 된다. 사인은 마음대로 정해도 좋다.

연한 먹색의 반점이 생긴 부분은 통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반점을 도려낸다고 해도

저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반점은 저주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점은 넓어진다.

▼**END: D** 피투성이 새신부

PC가 당해 쓰러지면, 여우는 빙그르 한바퀴 돌아, 인간의 모습으로 재빨리 변신한다.

".....승부가 났구나."

백미호가 느긋하게 고하자, **KPC**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이미 움직이지도 않을 시체 곁에 다가앉는 시로무쿠의 모습은 어딘가 애처롭다. 꼬리 둘 달린 여우마저, 차마 떼어놓지 못하고 그 절규를 지켜보고 있다.

흘러넘치는 생명의 근원으로 새빨갭게 물들어가는 새신부의 모습은, 애절하고, 비통하고, 아름다웠다.

이제 댔겠지, 하고 여우가면이 떼어놓으려 접근하면, 시로무쿠를 입은 KPC는 가까이오지 말라며 매섭게 노려본다.

"이래서야, 혼약이라 할 수 없구나."

흰 꼬리의 여우가 그 처절한 모습에 숨을 내쉬고, 신랑인 여우에게 고개를 향한다.

"신부의 마음은, 네가 인간을 쓰러트림으로서, 영원히 우리들 금수로 떨어지는 일 없이 고결한 인간으로서 빛나게 될 것이다.잔을 나눈다해도, 그렇다. 이제, 어떻게 하련?"

여우는, 눈썹을 모으고 대답한다.

"여기서 '강제로라도',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조금은 편했을 겁니다."

낮고 곧은 목소리는, 조용한 공기를 흔들었다.
신부에게 다가가, 여우는 잔혹한 말을 뱉는다.

"그대와 그 인간은 돌려보내주마. 허나 이래서야 너무도 억울하니, 나의 억지를 들어다오."

KPC는 고개를 젓고, 뭐라고 말하든 이미 여우의 얘기에 따를 심산은 전혀 없었다.
여우는 눈을 감고, 땅에 쓰러진 PC와 KPC에게 손을 뻗는다.

"작별이다. 나의 신부여."

여우가 고하자, 의식이 멀어진다.

PC는 눈을 뜬다. 그곳은 자신의 집 침대 위. 전부 환상이었을까?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싶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가웃한다.

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생각하자면, 마음 속의 한 조각이 삐걱거리는 듯이 아프지만, 고통은 그 딱 한 번 뿐이었다.

뭐 댔나, 하고 PC는 아침 준비를 한다.

현관을 나서자, 모르는 사람이 당신을 맞이했다.

"좋은 아침, (PC이름)."

그 말에, PC는 잔혹한 한마디로 답한다.

".....누구?"

슬퍼보이는 그 사람은, KPC를 바라보았다.

KPC, PC 함께 생환

*생환 보상

『SAN회복』

생환: 1d10

『PC후유증/망각의 저주』

KPC에 대해 잊어버리는 저주. 이것은 평생이든 일시적이든 상관 없다. KPC에 관한 모든 기억이 리셋된다.

(일시적일 경우, 무언가 극적으로 PC의 감정이 뒤흔들릴 때 떠올린다든가 하면 좋을지도)

▼END: E 당신의 새신부

여우가, 쿵 하고 땅에 쓰러진다.

"거기까지!!"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미호에게서 터져나왔다. 급히 여우가면들이 꼬리 돌인 여우를 둘러싸고, 치료를 한다.

백미호는 하늘하늘 꼬리를 흔들며 PC에게 붉은 눈동자를 향했다.

"훌륭했다. 그렇게까지 이 신부가 소중한 모양이지."

그리고, 커다란 앞발로 지면을 쿵, 걸어찬다. 그러자 온 산이 진동하고, 초목이 흔들리며, 여우비가 이어지던 하늘이 한순간에 개인다.

드러난 보름달이 비치는 신사는, 너무나 아름다워서—여기가 유세(幽世)라는 말을 들으면 납득할 만한 경치였다.

"그럼 축사를 올리자!"

야호! 야호!! 하고 여우가면들이 떠든다. 꼬리 돌인 여우는 이미 회복한 것인지 분한 기색으로 돌을 보고 있다.

"무얼 놀란 표정을 하고 있누. 듣자하니, 너는 거기의 신부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모처럼 열린 연회니라."

PC의 상처는 백미호의 날숨 한 번에 마법처럼 사라지고, 의복도 갖추어져..... KPC의 신부 의상과, 짝을 이루는 모습으로 변한다.

이전까지의 적의는 대체 어디로, 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자면 백미호가 처음으로 송곳니를 보이며 웃었다.

"승부에 진 것이다, 납득할 수밖에 없느니. 그대는 확실히 힘있는 인간이었다. 우리들은 성실하고 강한 자는 환영하느니라. 그것이 인간이든, 짐승이든."

"더구나 그토록 열렬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제와서 축사 한둘쯤이야 신경쓸 것도 아니다. 자, 잔을 나누고 부부의 맹세를 하거라. 이 백미호가 지켜보겠다."

"아아, 뭐야. 술의 내용물은 단순한 청주로 바꾸어두었다. 저승의 음식(*입에 대면 돌아갈 수 없다) 같은 짓은 하지 않으니 안심하도록."

백미호뿐만 아니라 여우가면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잔을 교환하면 맑은 술이 술술 목에서 위(胃)로 흘러들어간다.

질 좋은 술은 몸을 데우는 것만 아니라, 기분마저도 온화하게 만든다.

연회는 보름달이 모습을 감추고 새벽의 새벽이 하늘에 빛날 때까지 이어졌다.

여우의 등불행렬에게 집까지 배웅받는다는 보기 드문 체험을 한 PC는, 돌아가자마자 몸을 눕혔다.

아아, 이런 체험 두번 다신 못해, 하고 무심코 웃음마저 흘리고 말았다.

마지막에 꼬리 둘의 여우가 원망스럽게 다음번은 이긴다, 같은 말을 내뱉던 것에 웃음지으며, 의식을 내려놓았다.

KPC, PC 둘다 생환

*생환 보상

『SAN 회복』

생환: 1d10

꼬리 둘인 여우를 이겼다: 1d6

청주를 마셨다: 1d3

『특수보상/맑은 술』

여우의 힘으로 정화된 술을 마신 것에 의해 POW 또는 APP가 +5된다